서기 2006년
11월 15일(수) 제92호

창 간 일 : 서기 1983년 9월 26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2217-3717
F A X : (02) 2243-1073
E-mail : andongkim9@korea.com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 행 인 : 김 홍 식
편 집 인 : 김 관 묵
인 쇄 인 : 김 성 회
발 행 처 :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동대문구회경동112-49
우.130-875
홈 페 이 지 : andongkim.net

2006년 선조 시향 일정표

	향사 선조님	요 일	장 소
1	忠烈公(諱 方慶) 之墓	11.29(수) (음10. 9)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능동
2	冷平國大夫人竹州朴氏之亶	11.29(수) (음10. 9)	경북 안동시 풍산읍 회곡동
3	文英公(諱 恂)之墓	11.27(월) (음10. 7)	경기도 안양시 관양1동 後山
4	密直司事公(諱 七祐)之壇	11월(양) (첫째 일요일)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
5	開城尹公(諱 七霖)之壇	10월(양) (둘째 일요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6	大提學公(諱 承用), 評理公(諱 厚), 郡事公(諱 七陽)	(음3. 16)	전남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
7	掌令公(諱 玖)之壇 典書公(諱 成牧)之墓	(음 10월) 初丁日	충남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8	副使公(諱 天順)之壇	12.6(수) (음10.16)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용리
9	文溫公(諱 九容)之壇	11.21(화) (음10.1)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
10	安靖公(諱 九德)之墓	(음10월) 첫째 일요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승리
11	都評議公(諱 九鼎)之墓	11.24(금) (음 10. 4)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동 행촌
12	大護軍公(諱 儒)之墓	(음3.14)	전남 나주군 김천면 죽촌리 상촌(옥티)
13	文肅公(諱 永暕), 上洛伯公(諱 續), 提學公(諱 益達), 監察公(諱 孟雍)외 3位	11.26(일) (음10. 6)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14	眞簡公 (諱 永煦)之壇, 嶺三司 事公(諱 崴)之壇, 按廉使公(諱 土廉)之墓	11.25(토) (음10. 5)	충북 청원군 오창면 보정리
15	翼元公(諱 土衡)之墓	11.26(일) (음10. 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복왕리
16	掌令公(諱 蔓) 之壇 書雲觀正公(諱 綏)之壇	11.21(화) (음10.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7	正儀公(諱 哲)之壇	(양력 11월) 넷째일요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증평리 명성쉼터

※시향봉행시간 : 오전 11시 회곡동산소:오후 2시 예정
爲先敦睦하며 追遠之心의 정성으로 선조님의 시향에 경건히 참배합시다.

"충렬공 향사에 다함께 참가합시다."

존경하는 전국의 종친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읍니까? 11월은 충렬공양위분향사를 비롯하여 각파선조님 향사를 모시는 달입니다. 우리安東金門은 명문거족으로 숭조목족의 정신이 어느 문중보다 투철하여 조상을 모시는 정신이 투철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에는 일부지역에서 장마로 인하여 많은 종친들이 피해를 입었읍니다. 그럼에도 우리종친들께서는 각파를 중심으로 문중행사가 차질없이 활발히 진행되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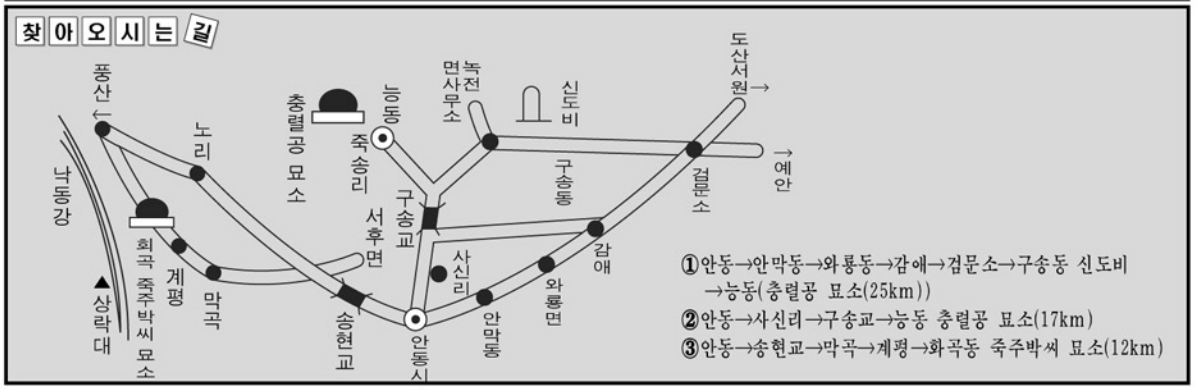
회장으로써 고마운 마음 금할길없읍니다. 이번 충렬공향사에는 인근 종친들과 연락하시여 많은 종친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히 젊은 층의 종친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뵈올때까지 종친각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종회장 홍식 올림

고려숭의전 秋享大祭

지난 10월24일(음 9월3일) 11시,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위치한 고려숭의전에서 각계인사및 16공신후손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秋享大祭가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날 우리 충렬공할아버님신위께는 안동성식대종회부회장이 헌작하였다. 우리門中에서는 만교익원공파종추공종회 회장, 문원(규회)익원공파 목사공종회회장, 태집(익), 봉식(익) 만길익원공파종회 사무국장, 관묵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숭의전은 고려태조神聖皇帝를 비롯하여 顯宗元文大王, 文宗仁孝大王, 元宗順孝大王, 四位와 16공신을 배향하여 춘추로 享祀해오고 있는 유일한 고려太廟이다.

찾아오시는 길



①안동→안막동→와룡동→감애→검문소→구송동 신도비→능동(충렬공 묘소(25km))
②안동→사신리→구송교→능동 충렬공 묘소(17km)
③안동→송현교→막곡→계평→화곡동 죽주박씨 묘소(12km)

충렬공 유허비 구좌대 해설비 건립 행사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연구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일) 경북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충렬공 초당 유허(草堂遺墟)에서 충렬공 유허비 구좌대 해설비 건립행사를 거행하였다. 서울의 안사연과 안동, 대구의 종친 등 모두 19명이 참가한 이 행사는 서울에서 제작하여 가져 간 해설비를 약 2시간에 걸쳐 건립하고 간단한 제막식도 겸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해설비 건립 작업은 구좌대의 비 홈에 화강석 새 좌대를 얹고, 그 위에 오석 와비(가로75, 높이48, 두께 14. 단위-cm)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제작비용과 경비 및 비문 등은 모두 안사연에서 마련했다.

개막식은 식순에 따라 묵념, 사회자 항용(제) 종친의 경과보고와 비문 낭독, 안사연을 대표한 영환(문)종친의 인사말, 안동의 동수(익) 종친과 대구의 진종(익) 종친의 축사, 케익 절단과 샴페인 개봉, 폭죽 발포, 건배, 인사소개 등의 의식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장에서 진종(익) 종친은 친필로 쓴 충렬공 시(登映湖樓吟詩) 서예작품을 발표하였고, 충렬공 소설 〈김방경, 일본을 정벌하라〉의 작가 봉석(익) 종친은 소설 작품에 대한 자평 및 해설을 하였다.

충렬공 유허비는 최초 1307년(충렬왕33)에 왕명으로 이곳에 세웠는데 임진왜란때 유실되었으며, 1765년(영조41)에 회곡리 마을 건너편 안산 도로가에 다시 세웠던 것인데, 1814년(순조14) 현 위치에 비각을 짓고 이건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 때 거북좌대로 교체하고 구좌대는 그 자리에 남겨 두었는데, 200여년 후인 지난 2005년 12월 3일 안사연에서 현 유허비를 답사하였다. 소천서원은 려말 선초의 대학자인 국파(菊坡) 전원발(全元發)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서원인데 이 경내 냇가 바위에 문온공의 친필이 암각문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 암각문은 문온공께서 경내에 있는 〈청원정(淸遠亭)〉의 현판 글로 썼던 것인데 이를 바로 옆의 바위에도 새겨 두었었는데 근대에 청원정을 중건할 때 없어진 현판을 재제작하기 위하여 물속에 잠긴 바위를 꺼내 현재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일행은 앞으로 탁본, 해설판 제작 등 이에 대한 문화재 관리 방법 문제를 협의하고 저녁 8시 서울로 돌아왔다.

*참가자 명단(무순)

안사연(8) : 영환(문),영윤(문),발용(군),태우(군),태영(군),항용(제),영식(안),윤식(문)

대구(2) : 봉석(익),진종(익)

안동(9) : 봉묵(익),재준(익),명회(익),봉회(익),진성(익),재경(익),동수(익),완현(익),명준(익),

〈기사제공자 : 항용(제)〉

〈충렬공 유허비 옛 좌대 해설비 내용〉

본 좌대(座臺)는 충렬공(金方慶)의 역사 유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유허비(遺墟碑) 옛 좌대이다. 이것은 본래 1765년(영조41) 3월 관청에서 본 회곡리 앞산 도로가에 세웠던 것인데, 1814년(순조14) 충렬공의 초당유허(草堂遺墟)인 현 위치로 유허비를 옮기는 과정에서 본 좌대의 거대규모로 인해 함께 이건하지 못하고 거북좌대로 교체한 뒤 200여 년간 도로가 밭에 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그 후 도로확장 계획으로 인한 본 옛 좌대의 멸실 위험이 있어 2005년 12월 3일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학술 연구회)에서 합동 발굴 및 실측 과정을 거쳐 본 좌대가 충렬공의 귀중한 유물이요 문화재인 유허비 좌대임을 확증하고 이를 영구히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현 위치에 옮겨 놓은 것이다.

2006. 11. 5. 안동김씨 사이버 학술 연구회 세움

〈유허비 구좌대 해설비〉

〈해설비 건립 참가자 일동〉

〈문온공 암각문에서 답사팀 일행〉

〈문온공 친필 암각문-淸遠亭〉

"충무공 김시민 장군 탄신 452주년 기념행사"

지난 9월23일 10시30분 충남 천안시 목천면에 위치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종친 및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무공 탄신 452주년 기념행사 및 제6회 학생백일장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식전행사로 30분간 군악대연주, 임진왜란당시의 김시민장군의 활약상을 영상으로 관람하였다. 본행사에 들어가 전수철학술분과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허용기기념사업회장의 내빈소개, 감사패증정, 김영대 이사의 학생백일장개최 결과보고에이어 최우수상등 24명에게 시상을 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연이사의 공신교서 낭독 허용기 회장의 기념사, 홍식대종회장의 축사에 이어 박상돈 국회의원, 양승조국회의원, 성무용천안시장이 격려사를 하였다. 이어서 천안시문화담당관의 유허지정비 계획발표, 황종현 동상 건립준비 위원장의 동상 건립추진 계획 발표와 동상건립선포를 끝으로 모든행사를 마쳤다.

충무공 탄신 452주년 기념행사 및 제6회 학생백일장 시상식

宣武功臣金時敏教書(선무공신김시민교서) 晋州城安着告由追慕祭(진주성안착고유추모제)

지난 10월10일 오후 5시30분 경남 진주시 진주성내에있는 국립진주박물관 앞뜰에서 각계인사 및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공신교서 진주성 안착고유 추모제를 봉행하였다. (祭前행사) 오후5시 대취타행열이 따르는 가운데 진주시민이 이끄는 輦(연)에 신위를 모시고 충무공 김시민장군 像앞에 體를 올리고 이어 창열사에 신위를 봉안하였다.

오후 5시30분 제례에 들어가 헌관집사성복, 관수세수각취위, 점촉 분향, 전원재배, 행초헌례, 독축, 행아헌례, 행종헌례, 행사신례, 행·음복례를 끝으로 추모제를 마쳤다.

이날 제관分定은 다음과 같다.

- 초헌관 : 진주문화사랑 모임회장 이영달
- 아헌관 : 국립진주박물관장 권상렬
- 종헌관 : 문영공종회회장 김학응
- 축관 : 제전위원장 이광식

(교서전시개막식) : 오후6시 15분, 교서전시 개막식에 들어가 진주박물관장의 개막인사와 내빈축사에 이어 교서공개, 교서설명회를 가졌다. 교서설명회에는 문화연대 황평우씨가 참여했으며 행사내내 MBC 방송국에서 행사전반을 중계하고 진주박물관 이상훈 학예연구사와 두차례행사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추모제에 우리문중에서 문영공종회 학응회장을 비롯하여 1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고유, 추모제를 통해 김시민장군의 혼을 위무하고 진주성과 남강의 굽이굽이마다 서려있는 진주문화의 살아있음을 온 진주 고을뿐만아니라 전국방방곡곡에 진주성을 끝까지 지켜낸 장군의 충절정신과 이슬처럼산화한 7만 군관민의 넋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백범김구선생 은거기념관 준공식

지난 9월5일 오전 11시 전남보성군 득량면 쇠실마을에서 종친 및 내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범김구선생 은거 기념관 준공식을 가졌다. 제1부 행사에 들어가 국민의례와 김태식(都)추진위원회부회장의 경과보고와 정형철추진위원장(보성문화원장)의 인사말에이어 정종해보성군수, 김철우보성군의회의장의 축사를 끝으로 1부행사를 마치고 2부행사로 기념비 및 현판제막식을 갖고 폐식하였다. 이 은거기념관은 백범선생님의 뜻을 기리고 애국애족의 민족정기를 자손만대에 물려주고자 1990년 3월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추진위원회(15명)를 구성하여 은거추모비를 쇠실쉼터에 건립하였다. 추모비만으로는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과 사상을 계승해 나가는데는 아쉬움이 있었을에도 재정적여건등으로 위업을 기리지 못하고 안타까워 하던중 전남도로부터 3억원의 지원을 받아 273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건평 13평의 은거기념관을 준공하게되었다.

백범김구선생은 이곳 쇠실마을 김승묵(광언)님의 집에서 45일간 은거하시면서 광억, 덕언 사중과 더불어 시대상을 논하고 동국사기를 가르치며 민족정기를 일깨우셨다. 또한 쇠실을 떠나시면서 아쉬움을 담은 이별난시를 남기신후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시었다. 해방후 귀국하여 다시본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정담을 나누면서 집집마다 친필휘호를 써주는등 은거의 깊은인연을 가슴에 담으셨다. 이쇠실 마을은 당시에 60여호의 대호군공후손 집성촌이었는데 지금은 40여호가 거주하고 있다한다.

이날 행사에는 백범기념사업협회에서 이상운부회장, 김무웅사무국장, 안종일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장 종친회에서는 재관익원공파종회부회장, 만길사무국장, 관묵종친이 참석하였다.

충민사 추모제향 봉행

지난 10월25일 충북괴산군 괴산읍 능촌리에 위치한 충민사에서 도내 유림제위 및 종친, 내외빈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향을 봉행하였다. 금년이 충무공김시민장군께서 순국하신지 四百十四년이 되는 해이다 제향봉행후 안병태충민사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추모제향에 바쁘신중에도 많은 종친들이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간략한 인사말에 이어 학응문영공종회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신교서가 일본인의 손에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경위설명과 공신교서환수에 성금을 모아주신 국민과 종친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말로 끝을 맺었다. 이날 추모제향의 분헌관은 다음과 같다.

- 초헌관 : 임각수 괴산군수
- 아헌관 : 연주 괴산군 교육장
- 종헌관 : 윤태선 농협 지부장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 찬조금 (2006.8.30~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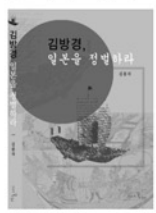
- 10만원 : (翼) 상용 (按)재선 • 5만원 : (翼) 재성 • 3만원 : (翼) 용해, 융회
- 2만원 : (翼) 윤한 • 1만원 : (翼) 태원 계: 340,000(원)

◎ 봉상회비 (2006, 8,30~10.31)

- 10만원 : (翼) 준엽, 강식 (副) 대식 • 5만원 : (郡) 원회
- 3만원 : (悉) 만회 (副) 규빈 (按) 흥식 (正)용수 (翼) 광회 ,정묵, 태준, 진식, 태인, 태승
- 2만원 : (副) 수일 (提) 명식 (按) 선진, 재균, 재득 ,재관 (翼) 태환,승규, 희석, 원일 성회, 재욱, 재환, (大) 재철
- 1만원 : (翼) 준회 계: 940,000(원)

〈김방경, 일본을 정벌하라〉 충렬공 소설 재출판

지난 11월 3일 대구의 봉석(익)종친께서 창작한 충렬공(휘 방경)의 소설이 〈김방경 일본을 정벌하라〉라는 신 제목으로 〈시간의 물레〉에서 다시 출판되었다. 초판이 발간 된 후 많은 종친여러분들과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 연구회)의 조언 및 재교정 과정을 거쳐 발간된 이 책은 표지 및 제목의 교체, 분량의 축소, 내용의 충실, 독서의 편리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재편집하여 발간되었다. 출판사에서는 이번에 총 700부를 인쇄하였는데 일부는 국내 대표 서점(교보문고)에 납품하였다고 한다. 한,중,일 삼국 역사서를 기초로 중시조이신 충렬공선조님의 실제 역사와 업적, 격높은 민족애와 국가애 등이 새롭게 조명되어 이 한 권의 책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또한 이 책은 충렬공 단일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출판한 최초의 본격 소설이며, 충렬공선조님에 대한 모든 것을 흥미있게 이해하는 데 가장 으뜸인 우리들의 필독 도서이다.



〈재출판 충렬공 소설 표지〉

현재 도서 구입 주문을 받고 있으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값 13,000원)

*도서 구입 문의처 : 02)3273-3867. (〈시간의 물레〉)

기사 제공자 : 恒鏞(提)

高麗統一大殿上樑式

지난 7월27일 고려통일대전 正殿상량식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48번지 통일동산현지에서 사단법인 고려역사 선양회 차화준 총재주관으로 오전 11시에 성대히 거행되었다. 차화준총재의 개식사와 고려통일대전사업 설명과 신은수도편수의 상량이 웅장한 모습으로 장관을 이루자 참석자들은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참석자는 124개 성씨 문중 대표와 각사회단체장외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고유제 분정은 다음과 같다

- 초헌관 : 차화준총재
- 아헌관 : 신춘범 파주시 문화원장
- 종헌관 : 정춘식 장원종합건설 (주)회장
- 독　축 : 김면기 전례위원

상량문은 慶州人 최근덕 성균관관장이 지었다.

高麗統一大殿上樑文

- 盛哉 (성대하도다)
- 金繡槿域高標幾千里 (금실로 수놓은듯 무궁화 강산 높이 솟아 몇천리인가)
- 銀鱗滄波環繞數萬頃 (은빛물고기 뛰노는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수만리로구나)
- 日月迭代 (해와달이 번갈아 비추이고)
- 乾始坤成 (하늘은 낳고 땅이 기른다네)
- 桓王降於太白山頂設神市在世理化 (환웅천왕께서 태박산에 내려오시어 신시를 베풀고 세상을 다스렸고)
- 檀君誕于神檀樹下入聖國 (단군은 신단수아래에서 탄생하시어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 始稱朝鮮 (처음으로 조선이라 일컬었다)
- 賢俊崛起 (어질고 준걸스런 분이 뒤를이어 일어나)
- 繼往開來 (지난것을 이어받고, 미래를 열었도다)
- 箕子法禁八條敎化禮義 (기자는 팔조목을 제정하고 예의를 가르쳤으며)
- 南北列邦三韓文明開化 (남북의 여러나라와 삼한에서 문명의 꽃이 피었다)
- 三國鼎峙新羅合一 (삼국의 솥발처럼 대립하다가 신라가 통합했으나)
- 昇平久固生靈靡沸 (태평이 오래되자 경직되어 백성이 허덕이게 되었다)
- 王建太祖 (왕건태조)
- 起布衣創業豪雄 (한낱백성에서 몸을 일으켜 왕조를 창업한 영웅으로)
- 救生民一統全土 (생민을 구하고 전국토를 통일했다)
- 高麗王朝 (고려왕조)
- 典範訓要十條 (훈요십조로 전범을 삼고)
- 信奉儒佛仙敎 (유교, 불교, 도교를 받들었다)
- 列聖至治 (역대임금은 훌륭한 정치를 했고)
- 文化完美 (문화는 완숙했다)
- 中期以後武將統權 (중기이후에 무장들이 권력을 농단해)
- 君弱臣强朝綱日陵 (임금은 약하고 신하가 강했으며 조정의 기강이 날로 무너졌다)
- 國運終焉三十四王 (국운이 끝나니 서른네분의 임금에)
- 歷數四百七十五年 (사백칠십오년이라)
- 忠臣節士 (충신과 절개있는 선비)
- 痛哭抱腕而入萬壽山杜門洞 (통곡하며 두팔 마주꽉잡고는 만수산두문동으로 들기도 하고)
- 飄然潛跡而生王代臣不見天 (표연이 자취 감추어 신하로 살면서 하늘을 보지 않았다네)
- 物換星移 (세월이 가고)
- 朝代屢遷 (왕조도 바뀌었다)
- 高節名賢之裔孫多士 (높은 절개 명현의 자손과 훌륭한 선비들이)
- 結成高麗歷史宣揚會 (고려역사선양회를 결성했다)
- 志確而篤行 (뜻은 굳고 돈독하게 실천하며)
- 沿經以遂史 (자료를 연구해 역사에 밝았다)
- 議定建立高麗歷史館及高麗統一大殿 (고려역사관 및 고려통일 대전을 건립하기로 의논이 되어)
- 合謀鳩財經之營之 (뜻을 합해 재물을 모아서 기획하고 공사에 들어가니)
- 士民瞻仰子來董事 (백성들이 우러러 보며 내일처럼 와서 도왔도다)
- 今玆吉辰 (이제 좋은 날에)
- 用升樑儷 (대들보를 올리게 되었구나)
- 燕賀爭陳 (축하 말씀 다투어 하면서)
- 共此歡謳 (다같이 노래하세)
- 兒郞偉拋樑東 (에헤야 대들보 올려라 동녘을 보니)
- 吾峰山頭旭日沖 (저기산마루에 아침해 솟구쳐 오른다)
- 宇內瑞氣自流漫 (우주의 상서로운 기운 저절로 퍼져나가는 구나)
- 潛扶邦運共無窮 (잠자코 나라운세 붙들어 무궁토록 하리로다)
- 兒郞偉拋樑西 (에헤야 대들보 올려라 서쪽을 보니)
- 松嶽餘脈半空遽 (송악에서 뻗힌맥이 반공에 우뚝하네)
- 節義莫恨隨時遠 (절의시대따라 멀리 진다고 한탄하지 마라)
- 春來薇蕨靑如許 (봄이오면 고사리 파랗게 돋아나리)
- 兒郞偉拋樑南 (에헤야 대들보 올려라 남녘을 보니)
- 無數峰巒橫翠嵐 (무수한 봉우리들 푸르름을 더하는 구나)
- 廣野黃雲極望低 (넓은 들판 나지한 구름 바라보니)
- 誰知雨澤有餘甘 (누구라 단비 내려 맛난 곡식 거둘줄 알랴)
- 兒郞偉拋樑北 (에헤야 대들보 올려라 북쪽을 보니)
- 經緯衆星皆拱極 (여기 저기 뭇별들 모두 북극성향해 공수하네)
- 尊祖奉先宣亦然 (조상 높이고 선대받드는것 또한 그러하리)
- 聖謨洋洋在簡冊 (성현의 가르침 똑똑히 책에 있다네)
- 兒郞偉拋樑上 (에헤야 대들보 올려라 위를 보니)
- 天知無涯知無疆 (하늘, 땅 가이없고 지식도 가이 없으니)
- 遺範競競恒服膺 (전해오는 글들 깍듯이 가슴속에 새기면)
- 要識今昔眞氣象 (지난날과 지금의 참기상을 알진저)
- 兒郞偉拋樑下 (에헤야 대들보 올려라 아래를 보니)
- 靑緗黃卷滿書架 (온갖 책들 서가에 가득한데)
- 指敎民族源流同 (민족의 원류는 같다고 가르치니)
- 統一念願決不捨 (통일에 대한 염원은 결단코 버리지 못하리)
- 伏願上樑之後 (엎드려비노니 상량후에)
- 棟宇華實 (건물 모두 화사하고 굳건하고)
- 榱桷永存 (서까래기둥 길이 보전되어지다)
- 貴人萬堂 (귀한분들 집안에 가득하고)
- 圖書長在 (도서들은 길이 보전되소서)
- 祝願 (축원하옵니다)
- 民族和合而國土統一 (민족이 화합해서 국토가 통일되고)
- 經濟成長而國家發展 (경제가 성장하여 나라가 발전하소서)

성균관관장 경주인 최근덕 짓고
사단법인 고려역사선양회 총재창건

숭의전 보존회장에 명회부회장

대종회명회부회장은 임기3년의 숭의전 보존 회장에 재추대되었으며 한국성씨 총연합회 전례연구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축하드립니다.

도서기증

대종회 태욱감사는 제학공파 파보2권과 안동김씨 사진譜1권을 대종회에 기증하였다.　감사를 드립니다.

❀ 향 전 원 에 ❀

(경조화환/화분)

대표　김재균

전화 : 783-3166, 783-3167, 780-8477
팩스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프린스텔 1층 1,2호)

효 부 시 상

군사공파찰방공종중에서는 년중행사로 유공종친 및 효부효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다. 소개합니다.

김용원씨는 차남 영철과 성만년씨 2녀 순이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2년를 두었다.

부인은 부덕을 갖춘아내로서 효심이 지극하시고 성실한 내조로 부군사기를 충전하고 미래에 행복하고 윤택한 생활을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 활력소가 되었으며, 성씨부인은 맹인이신 시어머님 병중에 동지절기 강치바람속에 방이 차면 군불을 뗄때가 수를 헤아릴 수 없고 꽃다운 나이에 山에가서 나무도 하고 들에나가 밭에다가 채소농사를하여 전주시장에 다니면서 채소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집안일을 다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정성껏 봉양하였고, 천지신명도 무심하게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시어머님은 치매병으로 누워계시어 12年동안 대소변을 손수 받아내고 대소변이 묻은 의복을 하루에도 몇번씩 세탁하는데도 조금도 눈살을 찌푸르지 않았다.

12年동안 간호를 하고 가진 고생끝에 불행하게도 시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치상을 잘하였고 성씨부인은 시어머님 3年상을 한결같이 정성껏 모셨다 하니 이점을 살펴보던 영천마을 근동사람들 모두 남녀노소가 이구동성으로 대효부라고 칭송이 자자하여 이 효부상을 드립니다.

2006. 3. 30

안동김씨 송호공 종친회
회장 김 영 득